

일본 아사히신문 허위보도사건에 비추어 본 보도윤리

일본의 최대유력지로 꼽히는 아사히 신문은 지난 5월 27일자 1면에 『이치야나기 아사히신문사장 사임』이라는 제목 아래 「산호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장이 자리를 물러났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일본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조직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책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것인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산호초 사건」이란 다름 아닌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것이었다. 아사히신문은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마지막 조치라 할 수 있는 사장의 사임을 결정한 것이다.

「산호초 사건」은 아사히 신문 1989년 4월 20일자 석간 1면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비롯됐다. 문제의 사진은 수중 촬영된 것으로 산호초군락에 「K. Y」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이 사진을 6단 13cm의 커다란 크기로 보도하면서 『지구어떤 색깔?』이라는 제목 아래 오끼나와 이시가끼섬의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산호초에 누군가가 「K·Y」라는 낙서를 해놓았다고 고발을 했다.

이 사진이 뉴스가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산호초군락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다. 오끼나와 이시가끼섬은 이미 10여년전부터 공항건설 적지로 인정돼 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7년 전 이곳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산호초군락이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공항건설을 추진하려는 운운성과 이 곳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청의 공방이 치열해졌고 결국은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공항건설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자연파괴행위에 대한 보도가 큰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불운(?)은 사진기자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현지에서 취재협력을 해준 다이빙 클럽 회원이 문제의 사진에 대해 날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아사히신문은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낙서는 촬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진기자가 더 깊이 굽어낸 것으로 1차적인 결론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곧바로 5월 16일자 조간 1면에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명백히 자연파괴방지라는 취재의도에 반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취재사진기자, 동경본사의 편집국장, 사진부장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했음을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의 낙서가 촬영효과를 높이기 위한 「덧칠」이 아니라 취재기자의 완전 날조였다는 사실이 계속된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아사히 신문의 대응은 실로 진지하고, 신속하면서 성의가 있는 것이었다. 아사히신문은 5월 20일자 조간 1면에 6단 크기로 『산호사진 낙서 날조였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중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3면 거의 전체에 걸쳐 독자에 대한 해명과 사과기사, 현지에서 일어난 경과보고, 자체의

조사결과, 현지 다이빙클럽의 경과보고서 등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사진도 다시 실었다. 아울러 사실을 통해서도 사과와 자체반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까지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히 신문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다른 아닌 신문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사정은 아직까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창피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으나 우리의 경우를 한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지방일간신문인 A 일보는 지난 5월 19일자 10면에 6단짜리 컷을 사용하여 『미 공해업체 듀퐁 울산에 공장건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유해폐기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 신문은 연이어 3회에 걸쳐 1면 머리기사, 5면 5단기사, 3면 10단 상자기사 등으로 듀퐁사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특급공해업체」임을 강조했다.

A 일보는 듀퐁사가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여 이를 이용, 금속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플라스틱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폐기물이 다량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들은 완전 오보였다. 이로 인해 A 일보는 듀퐁사의 중재신청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내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였다.

도합 4회에 걸쳐 거의 신문 1페이지 분량으로 오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기사는 3단에 원고지 2장 분량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오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속보형식의 기사였다. 한국화학연구소에 질의를 해보았더니 듀퐁사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산화티타늄 자체도 공해물질이 아니라는 답변내용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다.

A 신문의 무책임한 대응을 아사히 신문과 비교해 보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신뢰성 회복에 슬기롭게 대처한 아사히 신문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